

# 광주 서방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신안교~무등경기장 앞 광주천 합류부〉

## 2016년까지 108억 들여 하루 1만2천t 여과수 공급

광주 도심하천 중 대표 악취하천으로 꼽히는 서방천(신안교~무등경기장 앞 광주천 합류부)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광주시는 27일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만 물이 흐를 정도로 건천(乾川)화가 심각한 서방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천 지류 중 하나인 서방천은 발원지인 동광주 IC인근에서 시작해 콘크리트 복개구간인 복구정 앞과 전남사대부설중학교 앞 등을 거치면서 썩은 물이 합류하

는 탓에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실제 서방천으로 유입되는 물길 5858m 중 4658m가 콘크리트로 복개돼 심각한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 개발로 서방천을 막게 해주는 빗물의 유입마저 차단되면서 악취만 풍기는 매마른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서방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공업용수 수준인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다.

시는 이 같은 서방천의 건천화와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옛 보훈회관(복구 입동) 인근 광주천 바닥에 하상여과

설을 설치해 하루 1만2000t의 여과수를 서방천 시작점인 신안교 아래 하천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방천 하상여과시설은 광주천을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고 여과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맑은 물을 송수관로를 통해 서방천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게된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국비 54억원 등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해 폭 25m, 길이 200m의 하상여과시설 및 송수관로(1.5km) 매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문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하천담당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방천 구간



의 수질이 크게 개선돼 악취 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서방천의 수심도 최소 15cm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수생물의 서식처가 복원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국무조정실장 추경호·국세청장 임환수 장·차관급 13명 임명... 2기 내각 완료

### 산업부 2차관 광주출신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2명 등 장·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에는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기재부 1차관에는 주영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문화부 1차관에는 김희범 외교부 주에틀랜타 총영사, 산업부 1차관에는 이관선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광주 출신인 문제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복지부차관에는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고용부 차관에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관세청장에는 김남희 기재부 세계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주영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출신 3명이 각각 기재부 1차관, 산업부 2차관, 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영전했다.

대구 출신의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민 대변인은 “실용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처리 능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 내외에 신망이 두터워 발탁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실장과 임환수 청장의 발탁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의 호흡이 고려된 인사라는 말도 나온다.

임 청장 내정자는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서울청장 등을 역임한 조사통이다. 청와대는 내주중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13명의 장·차관급 가운데 장옥주 신임 복지부 차관은 유일한 여성으로 여성행시 2호 출신이며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 국무조정실장·차관급 프로필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추경호(54·대구) 기재부 1차관  
계성고/고려대 경영학과/행시25회
- 기재부 1차관**  
주영환(53·서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덕수고/서울대 경영학과/행시26회
- 기재부 2차관**  
방문규(52·서울) 기재부 예산실장  
수성고/서울대 영문학과/행시28회
- 미래부 1차관**  
이석준(55·부산) 기재부 2차관  
동아고/서울대 경제학과/행시26회
- 문체부 1차관**  
김희범(55·서울) 외교부 주에틀랜타 총영사  
경성고/연세대 행정학과/행시24회
- 산업부 1차관**  
이관선(53·경북)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행시27회
- 산업부 2차관**  
문제도(55·광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광주일고/서울대 경제학과/행시25회
- 복지부 차관**  
장옥주(55·충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서문여고/이화여대 법학과/행시25회
- 고용부 차관**  
고영선(52·서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신고/서울대 경제학과/스탠퍼드대 경제학박사
- 여성부 차관**  
권용현(54·충북)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대전고/연세대 경제학과/행시32회
- 국세청장**  
임환수(52·경북) 서울지방국세청장  
대구고/서울대 정치학과/행시28회
- 관세청장**  
김남희(54·충북) 기재부 세계실장  
청주고/한양대 행정학과/행시27회
- 조달청장**  
김상규(53·경남)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마산고/연세대 법학과/행시28회

## 광주시, '시장위에 시민' 권위적 의전관행 없앤다

‘시장님 차 문 열어 드리기’, ‘엘리베이터 미리 잡아두기’, ‘생채내기식 축사시간 마련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시장님 좌석 선점해 놓기’, ‘모든 행사에 10분 정도 늦게 시장님 모시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권위적인 의전 절차 중 일부다. ‘시민시장’을 지향하는 윤장현 민선 6기 광주시장은 앞으로 이 같은 의전관행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첫 사례로, 타 시·도에서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시장 위에 시민 있다’는 윤 시장의 시민중심 시정 철학에 따라 그동안 시장 중심으로 진행됐던 의전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의전의 기본 원칙에는 충실하면서도 ‘시민을 섬기는 시민중심 의전’,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의전’, ‘형식보다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자율 의전’, ‘행사주관 부서 중심의 분권형 의전’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 행사 때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내 책임관(제)’을 지정·운영해 차량 하차나 좌석배치 등에서 장애인과 어르신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시민의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시장 의전에 따른 위화감을 막기 위해 광주시장 참석 행사에 현장지원 인력을 최소화하고, 단체장 중심의 차량 문 열어주기, 엘리베이터 잡아두기, 기관장 입장 안내 방송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구종천 광주시 의전담당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의전문화를 없애려는 윤 시장의 의전에 따라 새로운 의전 원칙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념촬영. 지난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아래쪽 왼쪽에서 첫번째)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아래쪽 왼쪽에서 네번째)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최근 5년간 전남 '범죄 공무원' 1000명 넘었다

### 유주운전 468건·교통사고 135건 대부분 전책·혼계 솜방망이 처벌

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093건 등 모두 115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191건

으로 줄 뒤 지난해 9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주운전이 468건으로 3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135건), 허위공문서작성(101건), 공금과 향응수수(56건), 폭행(38건), 상해(34건), 직무유기(26건), 공금횡령(21건) 등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도 27명이 파면, 2명은 해임됐으며 강등(7명), 정직(75명), 감봉(75명), 견책(393명) 등이며 훈계 등 기타는 580명이다.

통보된 형사사건 중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해 훈계 등이 무려 84%를

차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면은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살인미수, 보조금 횡령 등이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금 횡령, 유용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고강도 공직감찰,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공무원 범죄가 줄었다고 자평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기성고대출 최고 15억!**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당시 구비서류:

- 사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사명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세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로예회관

- 사랑의 물도리쌀 500가마
- 희망 장학금 2,400만원
- 소화기 100대
-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 다문화 가정 지원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연세 정기예금 금리 1년 3%)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서양새마을금고